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 정부 염소 산업화 로드맵 본격 추진

- ‘29년까지 염소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이후 2차 성장단계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유통·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생산기반 구축)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도기간 운영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유통기반 구축)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 및 도축·가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문전 거래 방식의 농가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③ (질병관리)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어린자축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건락성림프절염의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추어 사육단계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하여 염소 의약품의 보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④ (점검체계) 분기별 협의체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 고기를 공급하겠다.”라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책임자	축산경영과장	이연섭 (044-201-2335)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이 현 (044-201-2336) 소병준 (044-201-2335)

1. 추진 배경

- 염소고기 수요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높은 외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유통 기반이 위축
 - * 수입량/호주산(톤): ('10) 526/515→('14) 1,436/1,420→('23) 5,995/5,931→('24) 8,143/8,126
- 타 축종 대비 제도화 수준이 낮은 염소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육업 등록, 이력제, 도축 등 제도적 정비 필요
 - 이력제 미시행, 사육업 등록 대상이나 미등록 농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자가 도축 비율이 높은 상황
- 국산 염소의 개량, 유통 체계화, 질병관리 등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2. 염소 산업 발전 대책(안)

◆ '29년까지 타 축종 대비 미비한 염소 산업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위생 등 국내산 염소고기의 관리체계 확립으로 소비 활성화 추진

1] 염소 생산기반 구축

- **(개량기반 조성)** 축과원, 농협, 협회 등 염소 개량 네트워크 구성하여 품종별 순종·번식군 조성과 보급체계 마련
 - * 축산과학원(순종 증식·분양, 품종개량), 도 축산연구소·농협(종축 증식과 실용축 생산, 농가보급),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 개체 관리)
- **(신품종 개발)** 환경·질병 저항성이 높은 재래종 흑염소와 고기 생산량이 많은 보어종을 조합하여 재래종 기반 육량형 신품종 개발(~'29)
 - * 털색은 흑색이고 12개월 출하체중이 55kg인 표준화된 실용축 생산
- **(유전자원 보호)** 재래종 흑염소를 토종가축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추진(~'27)
- **(등록 활성화)** 미등록 농가 실태파악 후 유예기간을 부여, 등록 완료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 * 미등록한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현장점검하여('26) 사육 실태와 미등록 사유를 분석한 후,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 **(브랜드 육성)**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 출범하여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 일관 기준 설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 상표개발 및 브랜드 심의('25.12월)→ 제품 개발 및 브랜드 출시홍보 행사('26 상반기)

2 염소 유통기반 구축

- **(원산지 관리 강화)** 인력·대상 확대하여 원산지 단속 강화('26~)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위해 DNA 분석 및 이화학 분석 검정법 개발('26)
 - * ('25) 특사경 128명, 수도권, 대구(음식점 밀집), 전북(생산지 밀집) → ('26) 특사경 285명, 전국
- **(이력제)** 염소에 적합한 이력관리 방안을 사전 연구용역('26) 통해 마련하고 등록이 완료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검토
- **(도축시설 지원)** 권역별(사·도) 염소 도축시설 신축 시범사업(최대 50억) 추진('26~)
 - * (지원 조건) 지원한도액의 70%(자부담 30%), 연리 2.0(생산자)~3.0%(일반업체)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추가예산 확보 필요)
- **(가축시장 확대)**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염소 가축경매시장 출하점유율 확대하고, 거래가격 세분화와 전용 앱 개발로 농가 거래가격 합리화 추진
 - * 염소 경매시장 수 : ('23) 2개소(충주, 부여)→ ('24) 17→ ('25) 24
 - ** 경매율 : ('25) 40% → ('29) 50%, 가격 세분화 : 암, 수, 거세, 약용(20kg)
- **(유통정보 조사)** 국내 염소 도축 및 염소고기 유통·판매 현황 조사
 - * (도축) 도축공정, 도축마릿수, 출하정보(성별, 생체중, 거세유무 등) 등
 - ** (유통·판매) 도축장 도체·부분육 유통 및 전문식당 등 정육·요리 판매 현황('26)

3 염소 질병·방역 관리

- **(백신 도입개발)** 세균 감염인 림프절염 백신('26년말 출시 목표) 개발, 염소 자축 폐사 질병('28년 출시 목표)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백신 개발 지원
- **(질병관리 프로그램)** 질병·사양 관리,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농가에서 스스로 질병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자율방역체계 구축(~'28)
 - * 염소농장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 실태조사('25~'27, 검본) 결과 반영
- **(허가간소화)** 소수 축종에 사용되는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 개정(~'26)
 - * 기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조성의 변화나 투여경로, 제형의 변화없이 소수 축종에 사용하는 경우 일부 자료를 면제

붙임2

염소산업 현황

생산분야	농가수	('22) 10,073호 → ('23) 10,263 → ('24) 11,474
	사육마리수	('22) 433천두 → ('23) 423 → ('24) 469
	호당 사육두수	('22) 43두 → ('23) 41.3 → ('24) 40.9
	품종	재래 흑염소, 보어, 누비안, 자넨, 키코 등
	출하월령	수컷 13~15개월, 암컷 35개월(3산)
	출하체중	약 50kg
	축사시설	축사(80%), 방목(4%), 혼합(16%)
	사육업등록률(추정)	약 38%
	가축시장	('23) 2개소(충주, 부여) → ('24) 17 → ('25) 24
	가축시장 거래두수	('23) 7,553두 → ('24) 25,621 → ('25) 47,506
	분뇨 발생량	두당/일 0.69kg
	분뇨 처리방법	소규모 농가(자체 퇴비화), 대규모 농가(퇴비업체 수거)
유통분야	소비량(추정)	('23) 10,986톤 → ('24) 13,708
	국내 출하량(추정)	('23) 4,991톤 → ('24) 5,565
	수입량(호주산)	('23) 5,995/5,931톤 → ('24) 8,143/8,126
	자급률(추정)	('23) 45.4% → ('24) 40.6
	도축장	23개소(염소 전용 11개소)
	도축실적	('23) 118천두 → ('24) 114천
	도축률(추정)	약 56.9%(불법도축 43.1%)
	지육 유통 형태	소매 직반출(52.8%), 식육포장처리 거쳐 소매 유통(42.8)
	소매 이용 형태	식당(55.3%), 식육점(20.5), 건강원(16.7), 온라인(5.5)
	소비행태	엑기스(진액), 염소고기(주로 탕, 수육, 전골)
	브랜드경영체	전남 화순(적벽흑염소), 경남 하동(솔잎염소)